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 필자는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민당 후보로서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창했을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애착을 느끼고 있기에 「대통령」 보다는 「선생님」으로 칭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IMF 신탁통치」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경제회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께 한국경제 아니 한국의 앞날이 순탄할 수만은 없고 또 「개혁」이 아니고서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몇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국민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상태 전반이 총체적으로 위험국면에 처해 회복불가능상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회생대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약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98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는 근본이 잘못돼서가 아니며 금융부실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지적, 거시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잘 넘긴다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자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당사자들이 깨우침으로써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지, 결코 희망과 용기만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양호한 국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 위기는 최소한 10여년동안 경제와 산업 전반이 부실화된 결과이며, 모두가 수용하고 동참하는 「개선」이 아니라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조직과 공무원수를 35~50%, 산하단체 및 연구원은 50%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행정조직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능률의 표상이며, 국가와 경제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없어서 좋은, 국가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조직은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 조직수 및 인원을 50%이상 감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구조는 관치금융이라는 왜곡된 관행을 뒤로 하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고 점포수가 과다함으로써 낭비와 비능률의 대표적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을 통해 비능률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추구하며, 과학적 분석자료가 뒷받침된 여수신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경제의 위기를 자초하고 심화시킨 장본인 재벌의 구조개혁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한국재벌들은 지금까지 부실투자를 통해 문어발 확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98년 12월31일까지 해소토록 강제화시킴으로써 합리화를 유도, 한국재벌들의 발전토대를 재구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은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소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구조개혁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늦춰서는 아니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넷째,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불가피하고 또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적자상태의 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공장을 담보하는 집단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보호대책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해악집단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론재벌과 재벌언론, TV를 비롯 검찰·법관·변호사, 서울대, 의사·약사, 회계법인 등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회발전 보다는 역기능 유발에 「생사」를 걸고 있는 집단의 척결없이는 개혁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도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할 선봉장은 경륜이 있고, 사명감과 의지가 투철하며, 사

리사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신한국당 최병렬의원을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JP도 수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 「개혁」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사는 시대」가 올 때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화학저널 1998/1/12>